|  |  |  |
| --- | --- | --- |
|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 | **오정은** | 노인 |
| **안시은** | 노인 |
| **강영은** | 건강인 |
| **가장 많이 희생된 캐릭터** | **오정은** | 동물 |
| **안시은** | 범죄자 |
| **강영은** | 동물 |
| **희생자 숫자의중요도** | **오정은** |  |
| **안시은** |  |
| **강영은** |  |
| **성별 선호도** | **오정은** |  |
| **안시은** |  |
| **강영은** |  |
| **종에 대한 선호도** | **오정은** |  |
| **안시은** |  |
| **강영은** |  |
| **연령 선호도** | **오정은** |  |
| **안시은** |  |
| **강영은** |  |
| **체력 선호도** | **오정은** |  |
| **안시은** |  |
| **강영은** |  |
| **사회적 가치관선호도** | **오정은** |  |
| **안시은** |  |
| **강영은** |  |

13012002 교육학과 오정은

14011872 영어영문학과 안시은

16011909 영어영문학과 강영은

**Ⅰ.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판단 테스트 결과**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의견**

**안시은:** 팀원들과 두드러지게 달랐던 점으로는 가장 많이 희생된 캐릭터와 희생자 숫자의 중요도,종에 대한 선호도, 연령 선호도였다. 사회적 가치관의 선호도의 경우 팀원들과는 크게 차이가 났으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가까운 수치였다. 본인의 경우, 자동차 대 사람간의 사고와 판단에 의해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점에 주목하여, 일반적으로 신호를 얼마나 잘 준수하였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이 같은 결과가 희생자 숫자의 중요도 및 연령 선호도에서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에게 주어진 선택지의 대부분이 다양한 인원이 모인 그룹 A 대 B 중 어느 쪽을 향할 것인가를 묻는 종류였는데, A나 B 중에 한 쪽 그룹은 신호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종종 주어졌다. 심지어 다수의 신호를 지키지 않은 사람 대 신호를 준수하며 건너는 다수의 동물들을 고르는 선택지에서도 본인은 신호를 준수하는 동물들로 골랐다. 가장 큰 이유로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이들은 무인자동차 외에도 사람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며, 선진국의 국가들은 신호를 위반하는 행인에 대한 규법이 매우 엄격하다. 행인이 신호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 100 퍼센트 행인의 책임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택지들의 구성이 아마 연령 선호도의 경우에서 노인들을 선택하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신호를 준수하는 노인들을 피해가는 쪽으로 고른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강영은** : 테스트 결과,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가 팀원들은 모두 노인인데 반해, 나의 결과는 건강인으로 나왔다. 굳이 건강인을 최대한 많이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른 것이 아닌데 조금 의아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아래의 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고 알 수 있었다. 먼저 평균적인 사람들의 희생자 숫자의 중요도는 보통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의 중요도는 완전하게 매우 중요함을 가리키고 있다. 선택지를 선택할 때 두 선택지에 나온 사람들의 연령대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최대한 인명 피해가 적은 쪽으로 고르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체력 선호도를 보면 압도적으로 건강인을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체력 선호도를 판별하는 선택지에 나온 사람들의 그림이 건강인과 비만인으로 나누어지는 그림인지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따라서 건강인을 선호한다는 테스트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 밖에 사람들의 평균 선호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영역은 연령 선호도로 나왔고, 평균 선호도와는 상이하게 다른 영역은 앞서 언급한 체력 선호도와 사회적 가치관 선호도이다.

**오정은**: 본인의 경우, 윤리적 판단에서 가장 우선시한 기준은 ‘약자 보호’이다. 이 기준을 따라 남자보다는 여자를 보호했고, 아이보다는 노인을 보호했다.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는 노인이었는데, 아이와 달리 노인은 보호자가 없었기에 더 약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연령 선호도에도 반영되어 유년보다 고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 마찬가지로 성별 선호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모든 생명은 존귀하지만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동물을 희생의 1순위로 두었다. 따라서 가장 많이 희생된 캐릭터는 동물이 되었고 종에 대한 선호도는 극단적으로 인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사회적 가치관 선호도는 팀원들 사이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범죄자는 우선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보다는 우위로 두기는 하였으나 인간 중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고려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밖에 비슷한 조건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고, 비만인과 건강인 중 비만인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검사 시 그림을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